8. 구원의 계획에 대한 대 예언과 아담의 반응
2012. 2. 19.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한 대 예언을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예언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애청자들께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겔18: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봉독한 이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죽는 자들의 죽는 것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 성경의 표현들은 성경적 사상에 의하여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거나 문장상으로 무리가 있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고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가감하면 하나님의 원래 생각을 왜곡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죽는 자들의 죽는 것이라는 말을 죽**을** 자들의 죽은 것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지요. 이 구절을 현대 번역이나 개정판 등은 다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개정판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라고 했고, 쉬운 성경은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공동번역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의 마음에 언짢다." 표준새번역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모두 이렇게 번역해서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지요. 그러나 원문은 "**죽는 자의** 죽는 것"입니다. 모든 번역들이 원리상을 다 맞는 것이지만 제게는 이 말씀이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사상을 깔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고 없어져버리지요. 다만 그 시간이 좀 연장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집해되는 때까지 죽는 자로 지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언어표현은 사람의 표현이 아니고 복음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언어표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생명의 하나님의 가절한 사랑과 노력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가 악한가를 따지기 전에 살아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입니다. 우선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입니다. 아마 사라들 세계에서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지금 죽을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둘러서서 저 사람 선한 사람인가? 살려줄 가치가 있나? 악한 사람이면 그냥 두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선 살려놓고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악한 존재들이라고 죽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인데요,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 있는데 죄짓고 악하면 하나님이 벌해서 죽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막 12:24,27) 참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정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답: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애청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질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금빛 새벽 시간에 강론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성경의 복음을 깨닫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창3:15은 성경 전체를 여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사용할 때만 성경이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지요.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생기는 남자인 아담에게서 취하여 넣었지요. 여자는 신체와 생기가 다 남자로부터 받게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번 어느 시간에 이야기 했지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창조되었습니다.(행17:26) 아담은 자기 허리에서 창조된 사람을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자라는 히브리어 이샤는 남자라는 말인 이쉬에게서 나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다 창세기 1:26절 이하에 있지요. 남자와 여자를 개별적으로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창2:7~25까지 있습니다. 애청자들께서 다 기억하는 성경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류는 아담과 그 아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를 통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담은 이 지구에 창조해 주신 지구에 충만하게 될 사람들의 생명의 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사람 생명의 씨였다는 말이지요. 그에게서 생명의 씨가 불어나서 생육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여자까지고 생명의 씨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으면 아담에게서부터 생육하게 될 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생명의 존재가 더 이상 생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루시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사람을 없애고 루시퍼에게 동조한 천사 3분의 1과 함께 사단의 왕국을 건설할 계획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루시퍼에게는 손해될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3.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에게서 생명 있는 후손들이 태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답: 예,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선악과는 여자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

을 때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씨가 여자에게는 없었으니까요.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 있으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더 취하여 여자를 만들면 되는 상태에 있지요. 그런데 남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그 생명의 씨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생명이 있는 후손이 태어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아담은 이제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하지요. 어쩌면 루시퍼가 그것을 노리고 하나님의 명령 둘 중 하나는 성취하지 못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 수 없고 루시퍼나 별로 차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주에 증거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정말 창조주께서는 궁지에 처하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거룩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스스로 계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동시에 해결하셔야 하는 궁지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는 궁지가 없지요. 창3:9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이 물음에는 아담 부부에게 전할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담아,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는가? 그 위치는 너를 창조한 나 말씀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자리이다.”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에 아담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대답하지요.

4. 창2:25을 보면 아담 부부는 처음부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3장에는 벗을 줄 알고 두려워한다고 했으니 기록상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말씀을 찾으니까 궁금한 것을 서로 찾아 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창2:25을 읽으면 인류의 시조가 나체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벗은 줄 알았다는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대답은 시편 8:5에 있지요. 이 구절은 이미 찾아본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지요.
[시8: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에 관 씌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타르”인데, “둘러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둘러쌌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부부가 영광의 옷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1:4을 보면 말씀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그들의 몸을 빛으로 둘러싸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옷은 입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빛으로 두르게 해서 빛을 옷 입은 것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시104:2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옷 같이 입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와 천사들도 빛을 옷 입고 있지 않겠어요, 그처럼 처음 창조된 사람도 빛을 옷처럼 입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졌지요. 시조 부부가 빛이 사라질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두려웠지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깨달았을 테니까요.

5. 목사님,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군요. 그렇지만 아직도 숨 쉬고 말하고 있으니, 그 죽는 것이 진짜 상태가 어떤지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다.

답: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벗은 것을 알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제 말씀 나눈 대로 뱀에게 선고합니다. 저주받고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심판의 선고입니다. 루시퍼는 그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의 실상에 대하여 아직 분명한 이해가 없었겠지요. 그가 와야 자기 머리가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올 때까지 아직 머리를 굴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시작한 반역을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까지 갖은 수단은 다 사용하여 밀고 나가리라고 생각했지요. 여자의 후손이 어떤 상태로 누가 올는지 모르지만 그를 이길 수 있다면 지구는 영원한 자기 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선고는 단호했지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는 상처를 입겠지만 사단은 머리를 상할 것입니다. 뱀, 곧 사단에게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하신 후에 이제 여자와 남자, 곧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지요.
[창3:16~19]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여자와 남자에게 어떤 결과가 이를 것인지, 그들 때문에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된 이 지구가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인지, 또 지구상의 생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예언입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적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수고 하고 해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7~19)고 하셨습니다.
이 선고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저주했다는 말이 없지요. 뱀은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사람이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이 회복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말씀하나님이 뱀과 싸우면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통입니다. 이 모두가 예언적 사건들이지요.

6. 그것이 저주의 말이 아니고 도리어 생명이 회복될 때까지 생활환경을 조성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답: 처음에 창조된 세계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세계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지요.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왔고, 사람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이 집행될 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합니다. 사망이 된 사람이 생명만이 생활할 수 있는 완전한 환경에서는 잠시라도 생활할 수 없지요. 그것은 육지 생물이 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육지 생물이 수중 생물로 변질되었다면 그것이 일시적으로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수중 환경으로 바꾸어줘야 하지요. 그래서 땅이 변질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이 변질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로마 8:21에서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고 설명했지요. 그리고 에베소 4:22에서는 사람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다고 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천연계 법칙들은 처음 창조했을 때의 법칙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질 되었습니다. 죄의 세상에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동안 생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처음 완전한 창조 상태의 천연계의 모든 법칙들이 다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7.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특히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복이 되었군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하신 이 말씀들을 이해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것과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알았을까요?

답: 예, 아담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증거나 창3:20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선고를 받은 다음인데,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자기는 사망이 되었지만 여자를 통하여 자기와 상관없는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이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창3:15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신앙고백의 이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라는 말이 “씨앗”이라는 뜻인 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요. 여자를 통하여 생명의 씨가 올 것을 믿은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는 사망이 되었고, 여자의 후손의 약속 때문에 빛을 두른 것과 같은 영원한 생명은 잃었지만 당장 사망 집행이 되지 않고 생육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생육하는 후손들은 다 사망의 씨로 나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생명으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고백한 것이지요.

8. 그렇군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곧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피니까 참으로 오묘하고 성경 속의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답: 창3:21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은 동물이 죽어야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죽만 따로 창조하시지 않았으니까요. 동물은 가죽을 내어놓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아담이 거기서 죽음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아담 자기의 죽음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피를 흘려 대신 죽어 주시는 것을 깨달았고,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짐승이 양이었을 것입니다. 계13:8에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구역입니다. 개역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한 자” 이렇게 번역해서 어린양의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역은 구역과 같습니다. 어린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여자의 후손 말씀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상하지요. 예수님은 그때 의미상을 죽었습니다. 그 후에 드려진 모든 속죄 제물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의미상을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다가 그분이 세상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바로 아담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그와 같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확신했지요. 우리도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겠습니다. 기도드리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이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으로 회복할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양의 죽음으로 사망이 처리되고 부활로 생명을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담처럼 확신합니다. 구원의 생명으로 오늘도 올바르게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